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1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2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3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네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1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2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3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4 예수가 계시는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 하도다

후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 담당

11/17(화)	11/18(수)	11/19(목)	11/20(금)	11/21(토)	11/23(월)
전병천 안수집사	안상은 안수집사	김성우 안수집사	이양종 안수집사	고광수 안수집사	박우현1 안수집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엡4:3,롬12:11)

2026년 11월 16일(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장지훈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12장	다 같 이
기 도		조병훈1안수집사
성경봉독	열왕기하 21장 10~13절	인 도 자
찬 양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새벽찬양대
설 교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장지훈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453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1:10~13>

10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3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11월 16일(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다가, 다시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지나온 모든 날들에 함께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지금의 새문안교회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난 139년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가오는 교회창립 140주년과 헌당을 준비하는 모든 걸음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교역자와 선교사님들의 섬김과 헌신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회와 제직,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통해 새문안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수능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 자녀들에게 두려움의 자리에는 평안을, 염려의 자리에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앞날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이해와 화해를 허락해주시고, 불안과 염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소망을 부어주시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을 주께서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모든 힘과 권세의 참된 주인이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겸손과 정직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남북의 긴장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 세계의 전쟁과 재난이 그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